여야, '김민석 인준'·'추경안' 놓고 대치 고조

與, 단독 처리 vs 野 "거대 여당 독주"

추경안 공방 "골든타임" vs "포퓰리즘"

'尹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도 재추진

여야의 대치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인준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져 집권 초기부터 극한 대결이 예상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은 야당이 김 후보자 지명 철회·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를 '새 정부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도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이 최종 무산되면 30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부적격 인사'라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두고는 '거대 여당의 폭주'라고 맞서고 있다.

추경안 심사도 정치판에 지뢰를 깔아놓은 형국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내인 7월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인식대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방위 공세에 나설 태세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서도 성실 납부자의 박탈감·역차별 소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과 달리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야당과 추가 논의하며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 관련 법안은 '8-9월 수확기 전'을 처리 시한으로 삼았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일방 추진보다는 여야간 합의를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예비후보가 지난 2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실 제공〉

박찬대 "당대표 되면 9월 내 검찰개혁 완결"

광주 찾아 '4대 법안' 통과 약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지난 27-28일 광주를 찾아 "당대표가 된다면 검찰개혁 4대 법안을 9월 내 반드시 완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신속한 검찰개혁을 위한 광주시민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민의 추석 밥상에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의 웃음꽃이 만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검찰 개혁은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정치 검찰의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기회는 넘칠 만큼 주어졌지만 개혁은 커녕 3년 간 나라를 망친 주범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이제 시민의 힘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 보복 앞잡이 노릇을 한 정치 검찰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된다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 법과 제도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후보는 28일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들께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막고 국민들의 결단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고 보고드렸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권 교체를 설계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꿈꾼 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 승리, 내년 지방선거 승리,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목포서 첫 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전남도는 29일 "전날 목포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회 전남도스포츠클럽교류대회에 전남 22개 시·군 36개 스포츠클럽 회원 880여명이 참여해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화합을 다지며 배드민턴, 축구, 탁구, 파크골프, 야구 종목에서 경합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회는 '전남스포츠발전의 희망! 스포츠클럽의 힘찬 도약!' 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포국제축구센터와 실내체육관 등 지역 체육시설에서 진행됐다.

대회는 스포츠를 매개로 한 지역 간 교류의 장으로 시민과 참가자 모두에게 호응을 얻었다.

유현호 관광체육국장은 "스포츠를 통해 전남 도민 간의 우애와 공동체 의식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고 스포츠클럽 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여수서 지방 위기 극복 돌파구 모색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 대회

전남 현안·지방분권 과제 등 논의

전남도는 지난 28일까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지방의 위기와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한 '2025 제6회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 대회'를 개최했다.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 대회는 전남도·여수시가 공동 주최하고 2025 지역혁신분권자치거버넌스센터 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27일 개회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여수·순천 지역구인 이광일·강문성·신민호 전남도의원, 거버넌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순은 서울대 특임교수 등을 포함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연구기관, 학회, 시민사회 단체와 분권자치 지역운동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명창환 부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과 주민의 참여 의식은 크게 성장했지만 중앙정부의 강한 통제와 재정 의존, 지역 간 불균형으로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 부지사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이 스스로 해결할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지방에 부여해야 한다"며 "프랑스와 독일처럼 상원제를 신설해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반영하고 국가 재정의 5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선 또 '지역활력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광역의 활력과 호남권 메가시티,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교육 개혁 및 거버넌스 혁명 등 전남의 주요 현안과 지방분권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와 함께 우승희 영암군수와 최대호 안양시장이 발표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수상 단체장 우수활동 발표회 등 지방정부 세션, 전국단위 학회 및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시민사회·연구기관 세션 등 이틀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참여자의 폭넓은 토론 장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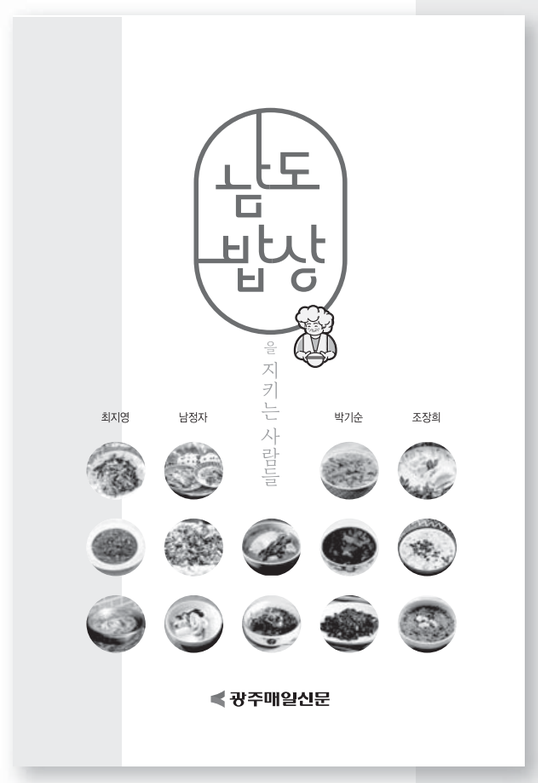
28일엔 '2025 여수분권자치 선언문'을 채택하고 여수 지역혁신 사례와 역사문화 투어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양시원 기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전 '붐업' 주력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지난 28일 주말을 맞아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과 광주 유스퀘어에서 미식박람회 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날 나주에선 제40회 가톨릭 공직가족 피정대회에 홍보관을 운영, 가톨릭 공무원과 가족 2천여명을 대상으로 남도 고유의 미식과 지속가능한 미식산업의 미래를 소개하고 박람회 공식 SNS 채널 구독을 촉진하기 위한 '남도미식 부루마불' 이벤트를 진행했다.

광주에선 주말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유스퀘어에서 광주시민과 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미식박람회 취지와 주요 프로그램 및 일정 등을 홍보하고 티켓 사전 예매 혜택 등 정보를 제공해 박람회 인지도를 높였다. /양시원 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 : 예금주 - (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